

광주환경공 노사공동 고강도 경영혁신

노사 경영 효율화 실천 협약
2개팀 축소 조직 슬림화
年 156억 감축 등 3대 혁신안



광주시 산하 공기업인 광주환경공단 노사가 지난 7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노사 공동 경영효율화 실천 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광주환경공단 최항동 관리본부장, 조성열 노동이사, 김정현 노조 위원장, 김성환 이사장, 송현석 노동이사, 박준섭 시설본부장.

광주시 산하 공기업인 광주환경공단이 노·사 공동으로 조직 슬림화 등 고강도 경영혁신에 나서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13일 광주환경공단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7일 광주시 공공기관 조직진단과 연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영 효율화 방침을 마련하고, 공동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환경공단 노사는 이날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기능 효율화 용역 결과를 반영해 환경기초시설 운영역량 강화 및 시민 공공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자체 경영혁신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주요 경영혁신으로 조직 슬림화 등 구조 개혁,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재정혁신, 대시민 공공 서비스 혁신 등 3대 방침을 정하고, 공단 창립 이래 가장 강도 높은 혁신 작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특히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팀 통합으로 2개팀을 축소하고, 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

지 생산 확대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연간 156억 원의 예산을 감축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25년까지 47억 원을 투자해 약취 저감설비를 구축하고 처리시설 내 유류부지를 발굴해 시민에게 개방하는 등 대시민 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성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 “노사가 공동으로 실천 협약을 추진해 조직을 슬림화 하는 등 대적인 경영혁신에 나서고 있다”면서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공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역 스탬프 찍고 선물 받으세요

어린이 대상 스탬프 투어 운영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오는 31일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도심 나들이 프로그램인 ‘여름맞이 스탬프투어’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학생 이하 어린이는 광주도시철도 각 역에서 스탬프투어 리플렛을 받아 총 10곳의 미션 역 중 희망지를 방문, 스탬프를 찍으면 된다.

미션 역은 학동중심사입구역(광주 백범 기념관), 문화전당역(전일빌딩 245), 광주송정역(1913 송정역시장) 등 도심 관광지와 인접한 역들이며, 대중교통을 이용해 지역의 명소를 탐방하는 재미 등을 선사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스탬프를 모아 능성역 역무실로 제출하면, 선착순으로 선물을 지급한다. 모아온 스탬프 갯수에 따라 공사 캐릭터인 ‘메트로짱아’ 쿠션과 에코백, 교통카드, 문구세트, 탄케이스, 마우스패드 등 다양한 선물을 제공한다.

스탬프투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grtc>)에서 확인하거나 문화홍보팀(062-604-810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조익문 사장은 “광주도시철도 스탬프 투어로 어린이들의 여름이 한층 즐거워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112명 뽑는다

24일까지...개인 SNS 계정 보유자 온라인 홍보·시책 아이디어 제안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분야 온라인 홍보와 지역 맞춤형 치안시책 발굴을 위한 제5기 청년 서포터즈 112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개인 소셜관계망서비스(SNS)를 보유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광주시민이다.

지원자는 오는 24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해 온라인 구글 폼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서포터즈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셜관계망서비스(SNS)와 연계한 온라인 홍보 활동과 시책 아이디어 제안, 기타 캠페인 홍보 활동 등을 하게 된다. 특히 이번 5기부터는 지난 4

기 서포터즈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기본적인 홍보 활동 외에도 거리 캠페인, 시책 관련 포스터 제작 등 캠페인 미션을 부여하는 등 활동의 폭을 넓히고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매회 활동 완료 때 보상 기프트콘을 제공하고, 활동 기간이 끝난 후에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우수 서포터즈에게는 감사장도 수여한다.

광주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청년들이 시책 홍보에 적극 참여해 광주지역 치안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청년서포터즈 112활동을 다각화해 지역 지킴이 역할을 더욱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활동한 제4기 서포터즈는 소셜관계망서비스(SNS)와 메신저 등을 통해 광주자치경찰 홍보 카드뉴스, 영상 등을 4000회 이상 게시·공유하고, 장차 홍보물과 시책 아이디어 등 24건을 제안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대학과 손잡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나선다

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 간담회
502명 실태조사 결과 공유
유학생 비자 문제 등 공동대응



광주시는 지난 9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지역대학들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광주시가 대학과 손잡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나선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지역대학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각 대학 국제협력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조사한 외국인 유학생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 애로사항과 재학생 지원 방안, 졸업 후 취업 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502명을 대상으로 유학 선택 과정, 대학 생활 만족도, 진로 및 취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광주시가 외국인 유학생 실태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에서 외국인 유학생 중 32.5%는 본국의 유학 관련 회사를 통해 광주지역 대학을 소개받았으며, 이중 89.2%는 광주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 65.5%는 대학 학습과 대인 관계 등 언어능력 및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장려책

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절반이 넘는 56.6%의 유학생이 취업 및 창업과 관련한 정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및 정보 제공, 비자 지원 등 종합 서비스의 필요성 등도 제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광주지역대학 유학생 유치 관련 담당자들은 대학생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취업 관련 정보제공, 문화 프로그램 개설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광주시는 이날 논

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과 관련해 지역 대학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동현 광주시 교육정책관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 소재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당면 현안이 됐다”며 “광주시는 대학과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유학생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광주에는 2022년 기준 50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으며, 베트남과 중국 유학생이 75%를 차지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문화예술 플랫폼 ‘디어 마이 광주’와 함께해요

디자인비엔날레 연계 이벤트 등 10월까지 다채로운 행사 진행

광주시는 “문화예술 통합 플랫폼 ‘디어 마이 광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채로운 연계 행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디어 마이 광주’는 누구나 콘텐츠를 쉽게 업로드할 수 있고 예술가와 소통하며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를 공유·교류할 수 있는 전국 최초 ‘시민-예술인-기관’ 쌍방향 중심 문화예술 커뮤니티형 플랫폼이다. 광주시는 2022년 2월 공식 오픈한 이후

그동안 플랫폼 정착에 집중해 왔으며, 올해는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는 9월 7일부터 열리는 디자인비엔날레 연계 이벤트를 비롯한 10월 디어마이워크 등을 통해 ‘디어 마이 광주’를 홍보한다.

김성배 광주시 문화정책관은 “신속하고 정확한 문화예술 정보를 제공하고, 다채롭고 재미있는 참여 이벤트도 진행해 계속 찾고 싶은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겠다”면서 “많은 이들이 ‘디어 마이 광주’를 찾고, 광주의 풍요로운 문화예술을 공유하며 문화향유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향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